

금융위원회 '지역재투자 평가' 최우수 선정

전북은행, 전북자치도서 유일... 첫해부터 3년 연속 받아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는 2024년 금융회사 지역 재투자 평가에서 지방은행 부문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 특히 시중은행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최우수 등급이 전무한 반면, 도내에서 지역 재투자 최우수 등급은 전북은행이 유일했다.



모에 비해 지역 재투자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기관들의 제1금융권을 운영하며 전북지역 재투자에는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이 이번 평가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지역경제 성장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는 '지역 재투자 평가'는 금융회사의 지역 내 자금 공급, 중소기업지원, 서민 대출 지원, 금융 인프라 환경,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노력 등 지역 금융지원 전략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실시해 왔다.

전북은행은 평가 첫해부터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올해 주영업권인 전북지역 최우수를 비롯해 대

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북은행은 전북에 본점을 둔 유일한 향토 은행으로서 JB금융지주 본사를 전주에 두고 대구에 있던 JB우리카페탈 본사와 JB자산운용의 본사까지 전주로 이전하며, 역외자금의 지역 내 환류와 지방재정, 세수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JB금융지주 자회사 중 광주은행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납부액은 713억원을 달한다.

이 밖에 전북은행은 매년 당기 순이익의 약 10%가량을 지역 사회공헌사업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백종일 은행장은 "전북은행이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은행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정돈(正道)을 걸어 온 것이 이번 지역 재투자 평가를 통해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만호기자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우리 고유의 민속명절 추석을 맞아 29일 전북도청을 방문 김관영 지사에게 이웃돕기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지역사회와 행복한 동행 실천"

건협 전북, 추석 명절 이웃 돕기 성금 2천만원 전달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우리 고유의 민속명절 추석을 맞아 29일 전북도청을 방문 김관영 지사에게 이웃돕기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소재철 회장은 "도내에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지역건설업계가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구심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행복한 동행을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성을 모아 불우한 이웃들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금일 전달된 기부금을 포함하면 총 기부 누적액은 4억 9천 5백만원이 된다. 김관영 지사는 "건설업계도 어려운 상황인데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원들이 매년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성금을 기탁하여 이웃사랑 실천에 적극 나서주어 감사하다"고 뜻을 전하며 "3%의 추가보조금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기업투자 유치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와 수주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기자



주택가구조합, LH공사와 공동 주택 가구류 품질 향상협약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이사장 박성진)은 지난 27일 LH공사 오리사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와 '공동주택 가구류 품질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LH공사가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납품·설치하는 가구류(가정용싱크대, 현관장, 반침장, 불박이장, 장롱 등)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과 가구업체의 품질향상을 통한 품질개선 및 하자저감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나아가 LH공사에 납품한 가구업체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인증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LH 공동주택 입주자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국민주거환경을 향상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은 LH공사 스마트건설본부(본부장 정운섭)의 제안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가구 관련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옥기기자

청사 이전 10주년 '주민과 함께 하는 사랑의 바자회' 개최

농진청, 내달 3일 정오~ 오후 4시까지 본관 앞 광장서 열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전북혁신도시 이전 10주년을 기념해 9월 3일 본청 본관 앞 광장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사랑의 바자회'를 연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4년 7월, 52년간의 경기 수원 시대를 마감하고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다.

이날 행사는 정오(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벼루시장 △농산물판매 △공연 및 전시회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벼루시장에서는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기부한 각종 의류, 잡화, 생활용품, 소형가전 등 총 1,000여점을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농산물판매 공간에서는 제철 채소와 과일을 비롯해 청국장 참기름 딸기 잼, 도라지청 등 다양한 가공 상품을 맛보고 구매할 수 있다.

1인 가족과 직장인을 위한 간편식도 판매한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 직원과 지역 주민 동호회원들이 첼로·플루트·기

타 연주와 전통 풍물·민요 공연을 선보인다. 세밀화 및 한국화 2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도 마련된다.

이날 바자회 수익금은 전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성금으로 기부하고, 판매 후 남은 물품은 전주시 '아름다운 가게'에 전달할 예정이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대표 공공기관이라는 책임감을 느끼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과 보급에 더욱 힘쓰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농촌진흥청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진협, 전북-도내 전문건설업 실적 상위업체 간담회 가져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는 지난 28일 도내 전문건설업 실적 상위업체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도내 전문건설업 실적상위 20업체가 모인 이날 간담회에서 협회는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현황을 전하면서 협회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했다. 참석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이사들은 지역 전문건설업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향후 개선방향과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관련 사항들을 논의했다.

임근홍 회장은 "수년간 계속된 건설 경기의 침체로 어려운 경영환경과 생



산체계 개편으로 인한 수주불균형으로 전문건설업계가 고전을 감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힘써주시는 회원업체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인사의 말을 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전문건설업

의 대표선수라는 생각으로 늘 굳건히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라며 우리도회도 늘 곁에서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석한 전문건설업 상위업체들은 대다수 민간공사에 도내 전문건설업계는 입찰 참여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하도급공사들을 의지업체가 독식하다시피 하는 실정을 말하며 대형건설현장의 하도급 참여확대를 통한 전문건설업 보호와 활성화를 건의했다.

이에 임근홍 회장은 "대형건설사 본사 및 현장사무소를 수시 방문해 다각도로 홍보활동을 펼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개공, 공공데이터 포털에 AI 신기술 무료 공개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AI 기반 전자문서 자동 배부 시스템의 소스 코드와 사용 방법을 담은 가이드를 30일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문서 제목을 분석해 자동으로 관련 부서를 예측하고,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해당 부서로 문서를 자동 배부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개발자는 이 가이드를 통해 시스템을 쉽게 설치하고, 필요한 코드를 활용하여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특정 그룹웨어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다른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공개된 소스코드는 문서 분류와 예측, 전자문서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며, 가이드에는 이 코드들을 설치하고 실행하는 방법이 쉽게 설명되어 있다. 이 자료는 공공기관 민간 기업, 그리고 일반 국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해 누구나 AI 기술을 손쉽게 도입해 문서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옥기 기자

남원축협, 금융사기 예방교육

남원축협(조합장 한경석)은 29일 영소 축산교육에 참석한 농가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인 사칭 부고장 스팸 피해 예방 안내 및 신용등급 상향으로 인한 전입금 요구시 100% 사기이므로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이나 거래은행에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한경석 조합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갈수록 진화하는 금융사기 예방 및 대처법을 공유하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정하며 앞으로도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으로 금융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